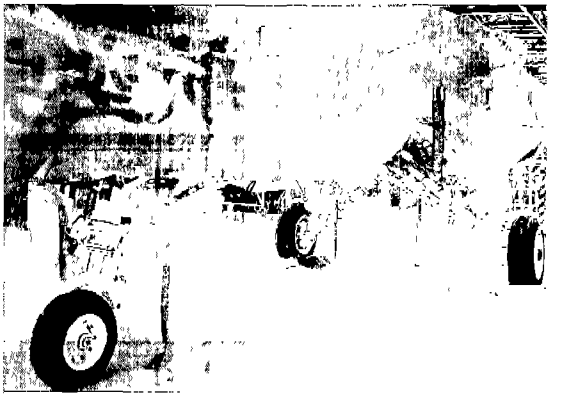
F-16랜딩기어 국산화성공… 기아중, 국내최초로

기아중공업(대표 김재북)은 지난 7월 10일 국내 최초로 F-16의 착륙장치인 랜딩기어를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김재복 사장은 '이번 전투기착륙장치 개발성공을 계기로 항공기의 착륙장치뿐만 아니라 헬기 트랜스미션, 허브, 보조동력장치, 유공압장치 등 항공기 핵심부품 개발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동 사는 지난 88년부터 연인원 100명과 2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항공기 랜딩기어의 국산화에 힘을 쏟은 결과, '90년 링스헬기, '91년 제공호전투기, '94년 블랙호크기의 랜딩기어를 국산화한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6의 랜딩기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기아중공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랜딩기어의 실제 장착 모습

동 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도입에 의한 가공조립 생산방식에서 발전하여 독자설계 기술력을 확보, 설계·가공·조립·생산 등 전체공정의 국산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8일 창원 항공공장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16착륙장치 국산화 개발기념식을 가졌다.

佛 아에로스빠시알 - 다소사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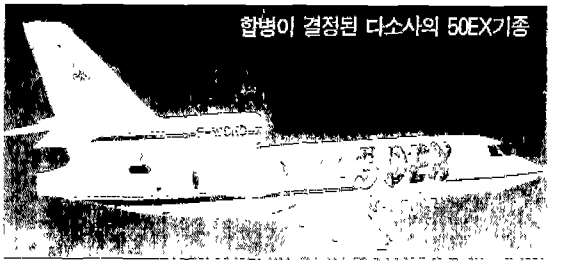
프랑스정부의 국방산업통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아에로스빠시알(Aerospatiale)과 다소(Dassault)사가 합병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유럽 최대의 항공산업체가 탄생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양사의 합병을 공식 발표하면서 합병에 따르는 기술, 재정, 산업 등의 세부조건들은 올해말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의 합병은 지난 2월 프랑스정부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방산업통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는데 다소사측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동 사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합병이 이루어졌다.

합병부분은 아에로스빠시알사의 전분야와 다소사의 다소에이비에이션이며 새로운 통합사의 부서는 크게 구매, 연구, 정보, 기술, 생산방법, 시험비행과 성능테스트 등 6개부서로 나누어 각사의 이익 기여도에 맞추어 구성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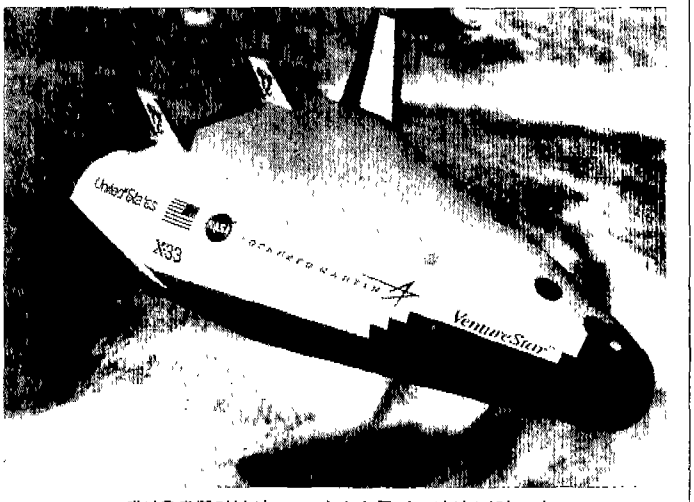
양 사의 통합으로 매출액 약6백억프랑(약 120억달러)에 종업원 4만7천명규모로 유럽 최대의 항공우주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합병이 결정된 다소사의 50EX기종

록히드 마틴의 벤쳐스타 (VentureStar) X-33 계약 획득

미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왕복선의 교체를 위해 제안된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Reusable Launch Vehicle, RLV)의 절반크기 모델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도록 하는 X-33계획에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를 선정하였다. 실제 크기의 발사체는 2005년에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사용우주왕복선으로 선정된 록히드사의 벤쳐스타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록히드 마틴의 벤쳐스타(VentureStar)는 '99년 3월 최초로 무궤도 자동 시험비행을 가질 예정이며 동 기는 수직 이륙, 수평 착륙 비행을 동년 말까지 15회 더 실시하게 된다.

전장 38.1m, 12,383kg의 벤쳐스타는 양력체(lifting body: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재돌입, 활공, 조종하면서 착륙할 수 있는 무익 로켓기)설계를 기초로 하여 제작 파트너인 Rocketdyne사가 개발한 신형 에어로스파이크 엔진과 견고한 금속 열 보호 체계를 사용한다. 또다른 파트너는 얼라이드 시그널(Allied Signal)사이다.

NASA는 동 계획에 9억4천백만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했고 록히드사는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만약 X-33 시험이 NASA의 허가를 받는다면 동 사와 파트너들은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RLV를 우주국과 합동투자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가를 결정할 것이다. 동 기는 연간 50회의 비행을 하게 되며 궤도 진입시의 kg당 유료하중을 2만 달러에서 2천달러로 낮추며, 한 번의 비행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어쇼, 범국가적 행사로 자리매김…

지난 6월22일부터 9일간 열린 인도네시아 에어쇼 '96은 인도네시아의 자부심과 해외 시장개척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IAS '96 개회식에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 새로운 행사의 명칭은 아시아-태평양 첨단기술 항공우주쇼이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항공우주 산업의 개발은 앞으로의 도약이며 항공기개발의 자립은 국가 목표의 일부'라 말했다. 유럽과 북미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지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산업계는 지역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박람회는 대체적으로 숙박과 부지 선정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9일간의 일정은 너무 길었고 시작부터 사업에 관련된 사람보다 자녀와 배우자를 동반한 일반 관람객으로 대회장이 북적거렸다고 한다.